

周易思想의 實體意識에 對하여

특히 安浩相氏의 批判에 答함(四)

跛龔生

그런데 氏는 拙文中에서 지조□□한 物의 意義에 對하여 疑問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너무도 駭怪한 일이다. 物은 形體와 技能을 具備하여 時間적으로 空間에 表現되는 □와 質의 結合體를 이룸이니 그러므로 宇宙도 物이오. 天도 物이오. 地도 物이오. 人도 物이다. 그리고 나를 爲하여 氏가 金剛經 序의 □□을 拒否한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金剛經 序에서 말한 바 物에 對한 氏의 見解가 너무도 先人主見에 拘碍되어 그를 非物 또는 無物로 歪曲한 것을 記憶치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氏는 또 이어 『氏(筆者의代稱)가 使用한 物은 栗谷先生이 『理氣非二物, 又非一物』 이라 하 는 그 『物』의 意味를 內容한 것도 아니니 氏(同上)의 말과 같이 『物은 物質이 聚合하여 形成 된다』는 意味로서 卽, 個別的 物體의 意味 밖에 가지지 못한 까닭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나는 安浩相氏의 學問을 研究하는 熱情과 努力에 對해서는 더욱 敵意를 表하지 마는 그러나 아모리한 意味도 理由도 없는 일에 時間을 消費할 必要는 없지 아니한가고 생각한다. 그리고 栗谷의 『理氣非二物, 又非一物云云』의 『物』字는 『者』字의 體이오. 또 이 表現이 混亂한 意識인 것은 다른 機會에 論하려니와 氏가 任意로 提出한 物의 觀念을 가지고 物質이 聚合하여 形成된 物은 個別的 物體의 意味 밖에 가지지 못한다하는 □強附□와 그러한 前提하에서 『그러면 이 物質의 聚合으로 形成된 物을 氏(同上)가 道理의 實體라 하는 主張은 周易思想上으로는 너무도 背馳된다 아니할 수 없다』하는 我田引水論은 삼갈 必要가 있을 줄로 안다. 그리고 氏는 만일 氏가 忌避하는 『이 物質의 聚合으로 形成된 物』이 아니오. 太初에 物이 있어 그것이 道理의 實體라 하면 그 主張은 周易思想과 背馳 되지 안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前面拙文中에서 物質의 聚合으로 形成된 物이라 함은 어느 生命體의 死生을 論함에 當하여 精氣와 魂□의 聚合分散을 說明한 句節에서 使

用한 것이어니와 天地人 三才가 모두 物이라 하면 그들도 역시 物質의 聚合으로 形成된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物이 生이나 物質이 先이나 하는 議論은 잇을 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議論을 展開할 必要가 없다.

또 氏は 『周易에서는 『萬物雖多, 無不出於陰陽之變』이라 하였으며, 『有天地然後, 萬物生焉, 而天地之間者, 唯萬物, 故受之以中, 中者□也, 中者物之始生也』라 하였으며, 다시 『天地者, 陰陽形氣之實體也』라 한 것을 綜合해 본다면 天地之陰陽에 實體이며, 또 物은 陰陽는 變으로 되는 故로 陰陽은 物의 實體가 되는 것이다』고 하였다.(傍點筆者)

그런데 氏의 引用前提는 다음 말하려니와 周易에 있어서 天地는 陰陽의 實體이라 하였으니 『陰陽은 物의 實體가 된다』함은 蘇東坡의 陰陽非物論을 非難하다가 術數說에 陷入 朱子의 陰陽物質說보다도 더 一層捕扯할 수 없는 理論이다. 그리고 前回拙文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元來陰陽이란 것은 物의 容態로서 一動一靜이나, 一進一退이나, 一起一伏하는 事物의 現象을 表示하는 말이니 그러므로 그가 物의 實體가 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動靜이오. 사람 그것이 될 수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氏는 『物은 陰陽之變으로 되는 故로 陰陽은 物의 實體가 되는 것이다』하지마는 이는 原文의 『萬物雖多, 無不出於陰陽之變』이라는 文意를 잘못 理解한 까닭이다. 卽 『無不出於陰陽』이라 하였으면 陰陽이 物을 生하는 實體가 되지마는 그 밑에 『之變』二字가 添付된 까닭에 陰陽은 實體가 아니오. 物이 變化하는 作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無不出於陰陽之變』이라 함은 一陰一陽하는 物의 自體作用에 依하여 萬物은 生産變化한다는 뜻이다. 또 氏가 引用한 『天地者, 陰陽形氣로 實體』라는 말은 氏의 論旨를 辯護하지 않는다. 어찌 그러냐하면 이 文意는 天地는 實在한 物體로서 陰陽(道)과 形氣의 現象形態를 가진다는 말인 까닭이다. 그리고 氏는 『有天地然後, 萬物生焉』이라는 天地□非物로 理解하는지 알 수 없으며, 그것은 萬物을 生하는 實體로서 □物인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은 萬物을 生함에 저의 固有한 道와 德을 施行하는 것이다. 그리고 周易屯과는 蒙昧社會前期 卽單純社會의 現實을論한者인데 伊川의 『問天地間者, 唯萬物, 故受之以屯 屯者 靜也, 屯者萬物之始生也』라 한 簡명한 唯物論的 解說까지 引用해 가지고 오히려 『陰陽은 物의 實體가 되는 것이다』하야 陰陽의 神秘性を 強辯하 는것은 理解치 못할 일이다. 그리고 伊川의 屯卦解와 마찬가지로 『無天地之間者, 唯萬物』인 것과 또 陰陽이란 것은 이 天地間의 萬物이 變幻하는 現象을 標示하는 符號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周易屯卦로 말하면 社會的 見地에서나 또 政治的 見地에서나 極히 重大한 意義와 內容을 가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理解치 못하면 易理는 말 할 것도

없고 六十四卦의 機械的 解說도 理解치 못 할 것이다. 그러나 紙面關係도 있고 그의 解明은 本問題와 直接聯關 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機會로 미룬다.

그런데 氏는 『여기서 天地와 陰陽 또는 天地와 物의 關係를 더 考察한 餘裕가 없어 다만 陰陽과 道의關係로□ ~ □ 아닌 것을 明白히 하고저 한다』 하고 또 『萬物이 出於陰陽之變』을 提示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之變』二字는 빼여 노코 다만 『萬物이 出於陰陽이라하는 이 思想은 오즉 周易에서 뿐만 아니라 儒學全體를 一貫하여 잇는 思想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내의 緊張은 여기서 풀리고 말았다. 그리고 『之變』二字가 빠진 것은 印刷의 不正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타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陰陽은 物이 變化하는 作用, 卽 容態를 意味한 것이니 더 追求할 것이 없다.

또 氏는 『變□□氏는 萬物發生養育於陰陽五行之氣, 道, 卽 陰陽五行之理』라 하였으며, 周易序에서는 『萬物之生, □陰於抱陽』이라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워 보면 物은 如何한 種類의 物이든지 오즉 陰陽으로부터 成立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萬物發生養育於陰陽五行之氣』라는 『氣』는 變의 뜻이니 이것은 『萬物出於陰陽之變』이라는 말과 다르지 안코 또 『萬物之生, □陰抱陽』이라는 말은 □陰 卽, □界를 등지고 抱陽 卽, □世에 나타난 것이 物의 生임을 說破한 者이니 이것을 미루워 보아서는 物은 陰陽으로부터 成立되고 그리하여 陰陽은 物의 實體가 되는 理由가 結論되지 안는다.

또 氏는 이어 陰陽의 前提가 없이는 萬物이 不可能(!)한 故로 陰陽은 物의 前提이때 理由이오. 物은 陰陽의 結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前提理由, 結果의 聯結이 三段論理가 되고 아니 되는 것은 別問題로 할지라도 元來 前提와 理由는 原因이 아니니 氏의 『物은 陰陽의 結果이다』는 結果說은 空中樓閣이 되지 아니 할 수 없다. 要컨대 太極이 兩儀, 卽 陰陽을 生하고 兩儀가 四象을 生하고 四象이 八卦를 生한다 함은 陰陽이 物, 卽 實體가 아님을 잘 說明하였다.

그런데 氏는 나가서 道와 陰陽과의 關係를 究明한후 『陰陽은 道의 結果이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前回拙文의 論旨와 다르지 안커니와 氏가 以上에서 論難한 理由 以外에 다시 다른 理由도 引用도 提示치 안코 거듭 『物은 陰陽의 結果이다』라고 한 것은 다시 論難할 必要가 없다.